

A magazine about Shimane Prefecture, Japan

시마네 이모저모

Vol. 68

ガイドと歩く

歴史が生きる! 武者から見た松江

ガイドとともに森の中を歩く ~有福MOSS LAND~

化石の畳「石見畳ヶ浦」

ガイド와 걷다

역사가 살아있다! 무사가 본 마쓰에
가이드와 함께 숲속을 걷다 ~아리후쿠 MOSS LAND~
화석 다다미 '이와미 타타미가우라'



역사가 살아있다! 무사가 본 마쓰에

올리버 마셜

마쓰에시에 산 지 어느덧 6년이 지났다.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 차에 바다를 건너 인연이 있어 마쓰에에서 살게 되었다. 처음 마쓰에에 와서 '이렇게 일본의 성이 보이는 곳에 살 수 있다니!' 라는 것이 첫인상이었다. 마쓰에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자주 길을 잃었는데, 마쓰에성을 기준으로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미있게도 처음부터 마쓰에성이 나의 생활을 서포트해 주었다.

마쓰에성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여러 번, 천수까까지 올라가거나 성하마을을 걷거나 성을 둘러싼 해자를 도는 유람선을 탔다. 오랜 기간 살다 보면, 성을 둘러싼 호리카와 강과 강에 놓인 다리, 굽이굽이 굽은 길, 멋진 절... 성하마을의 특징들이 점점 당연한



풍경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역사가 넘치는 관광지에 와서도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는 것에 집중하기 쉽다. 친구들에게 느낌을 전달하거나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는 좋겠지만,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는 그 장소가 단순한 배경이 되어버려 무언가 아깝다... 요컨대, 그 장소의 역사를 알고 방문하면 더욱 즐길 수 있는 것을 이번 취재로 다시금 느꼈다.

동료들과 매일 생활하고 있는 성하마을인 마쓰에를 '재발견' 하기

歴史が生きる! 武者から見た松江

私は松江市に住んで、あっという間に6年間が経った。カナダの大学を卒業し、社会人一年目で海を渡り、ご縁があって松江で暮らすことになった。初めて松江にきて、「日本のお城のこんなに近くに住めるなんて!」というのが第一印象であった。松江にまだ慣れていないところは、よく道に迷ったが、松江城を目印として自分の位置を確認できたので、面白いことに松江城が最初から私の生活をサポートしてくれた。

松江城の近くに住んでいるので、この数年間、何度も天守閣まで登ったり、城下町を歩いたり、お城を囲むお堀をぐるりと回る遊覧船に乗ったりした。長年住んでいると、堀川やそれに架かる橋、うねうねした道、見事なお寺... 城下町の特徴が当たり前風景だとだんだん思うようになってしまう。特に私たち現代人は、歴史溢れる観光地に来て、SNSに載せようと、映える写真を撮ることに集中しがちだと思う。友達に気持ちを伝えることや観光客誘致の目的にはいいと思うが、写真や動画だけではその場所がただの背景になってしまい、何かもったいない、つまり、その場所の歴史を知った上で訪れるのもっと楽しめるのではないかと、今回の取材で改めて感じた。

オリバー・マーシャル

同僚と一緒に、毎日生活している城下町である松江を「再発見」するために、松江観光協会が主催する「まつえ時代案内人」による街歩きツアーに参加してみた。その案内人はなんと、武者だ! 今まで松江城の周辺を歩いている武者を見たことはあるが、武者ガイドと直接話し、400年前の松江の様子を聞くことは初めてだった。

細部にまでこだわった甲冑を身にまとった「石垣猿之助」と「楠馬之介」、二人の武者ガイドに案内してもらった。二人は松江の都市計画をした堀尾吉晴の家臣である。片手に火縄銃、もう片方の手に古地図を持つ猿之助さんは、力強い声で私たちを歓迎してくれた。長いモコモコした飾りを付けた兜を被る馬之介さんは、城下町に関する様々なイラストが描かれたスケッチブックを持っていた。お笑いコンビのような気さくな雰囲気の中で武者の言葉で語りながら、二人は400年前の都市計画が残る城下町を案内してくれた。

城下町松江は当初から、敵に対する様々な備えをした都市計画で誕生したと、猿之助さんと馬之介さんは説明した。その都市計画は「町割り」と言い、今でもその面影が見られる。今回のツアーは松江の町割りをより良く知るために、当

武者ガイドの松江城

위해, 마쓰에관광협회가 주최하고 있는 ‘마쓰에 시대 안내인’ 과 거리 걷기 투어에 참가해 보았다. 놀랍게도 투어의 안내인은 무사다! 지금까지 마쓰에성 주변을 걷고 있는 무사를 본 적은 있지만 무사 가이드와 직접 이야기하며 400년 전 마쓰에에 대해서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갑옷을 입은 ‘이시카기 사루노스케(石垣猿之助)’와 ‘구스노키 우마노스케(楠馬之介)’, 두 명의 무사 가이드에게 안내를 받았다. 두 사람은 마쓰에의 도시계획을 세운 호리오 요시하루 가문의 가신(家臣)이다. 한 손에는 화승총, 다른 한 손에 고지도를 가진 사루노스케 씨는 힘찬 목소리로 우리들을 반겨주었다. 길고 털로 된 몽글몽글한 장식을 단 투구를 쓴 우마노스케 씨는 성하마을에 관한 다양한 그림을 그린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개그맨 콤비 같은 소탈한 분위기로 옛 무사의 말투를 사용하면서 400년 전의 도시계획이 남아있는 성하마을을 안내해 주었다.

성하마을 마쓰에의 도시 계획은 처음부터 적의 침략에 다양하게 대비하여 탄생했다고 사루노스케 씨와 우마노스케 씨는 설명했다. 그 도시계획은 ‘마치와리’라고 하는 구획을 나눈 것으로 지금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투어는 마쓰에의 나누어진 구획을 잘 알아보기 위해 당시 일본의 센고쿠 시대, 서국(西國)이었던, 모리(毛利) 가문이 만약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가상의 모리군’이 되어 마쓰에성을 노리는 특별 걷기 코스였다. 마쓰에성 입구에 있는 호리오 요시하루 동상에서 출발하여, 호리카와 강을 따라 걸으며 마쓰에성의 북동쪽에 있는 센주인 절을 향했고, 그다음 뒷길을 지나 성의 북측에 있는 당시의 사무라이 저택이 남아있는 시오미나와테 거리에 도착하는 루트를 걸어보는 것으로, 마쓰에성이 얼마나 공격하기 어려웠는지가 잘 상상되었다.

마쓰에성 주변에는 가기가타로(鉤型道: 갈고리형 길)라는 교차로의 직선 길을 틀어 흐름을 끊기게 한 교차로가 있다. 이것은 적이 일직선으로 마쓰에성에 진군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도시구획의 일부이다. 그 밖에 마쓰에 중심부에는 25개의 사찰이 모여있는 ‘테라마치(寺町)’라는 평탄한 지역이 있다. 절을 일부러 한 개의 넓은 장소에 집중하게 건축하여, 성하마을을 침략하는 적군을 이곳으로 유도하여, 마을 사람들을 지키는 무사가 매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찰의 배치까지 고려해 당시 마쓰에는 최신 군사 기술을 활용하여

계획한 요새였다.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도시 계획에 의한 성하마을의 비밀이 마쓰에는 넘친다.

마쓰에 시대 안내인 홈페이지지를 보면, ‘천하제일 상냥한 성 가이드’를 표어로 하고 있는데, 이번 취재에서 더운 날씨에도 사루노스케 씨와



우마노스케 씨가 재미있게 안내해 주셔서 정말 맞는 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처음 마쓰에에 온 사람도, 나같이 6년간 마쓰에에서 산 사람도 무사 가이드 투어에 참가하면, 400년 전의 마쓰에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

무사가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성하마을에서 마쓰에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황송한 일이 읊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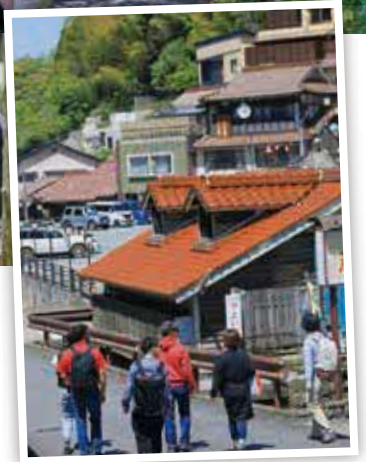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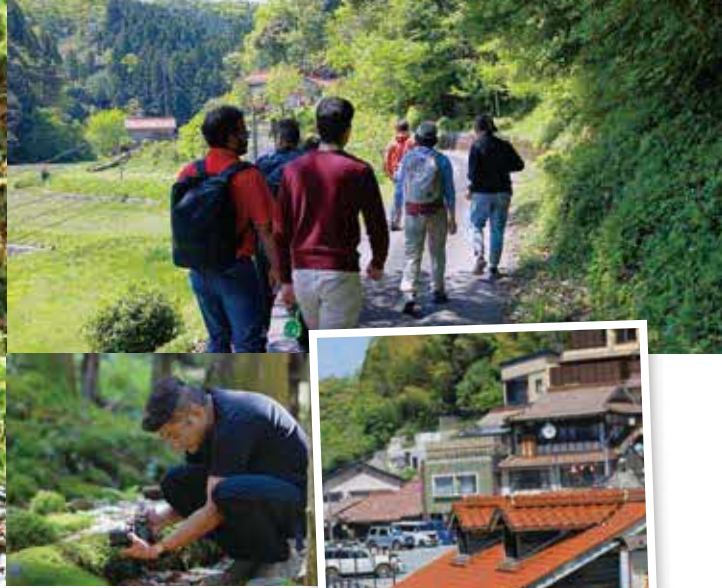


時の西国であった毛利がもし攻めてきたらどうなるのか、私たちが「仮想毛利軍」として松江城を目指す特別の街歩きコースだった。松江城の大手前にある堀尾吉晴公銅像から出発し、堀川沿いを歩きながら松江城の北東にある千手院に向かい、それから裏道を通り、お城の北側にある当時の侍の屋敷が残る塩見縄手に着くルートをたどることで、松江城がいかに攻めにくいのかをよく想像できた。

松江城周辺には「鉤型路」という交差点の筋がずらした変則的な十字路がある。これは、敵が一直線に松江城に進軍できないように作られた「町割り」の一部である。その他、松江の中心部には25軒の寺院が集まる「寺町」という平坦地がある。お寺をあえて一つの広い場所に集中して建てることで、城下町を侵略する敵軍をそこに導き、町人を守る武者が待ち伏せできるようにした。お寺の配置まで考え、当時の松江は最新の軍事技術を用いて計画されたとりで砦であった。見るだけでは分からない、「町割り」による城下町の秘密が松江は溢れている。

まつえ時代案内人のホームページを見ると、「天下一やさしいお城ガイド」を合言葉にしているが、今回の取材では暑い中、猿之助さんと馬之介さんに色々

楽しく案内してもらって、まさにその通りだと自信を持って言える。初めて松江に来た人でも、私のような6年間松江に暮らした人でも、武者ガイドのツアーに参加すれば、400年前の松江を新しい視点で見ることが出来る。武者がまだ活躍している城下町で松江の歴史を実際に体験でき、かたじけなくことでござる~!



가이드와 함께 숲속을 걷다 ~아리후쿠 MOSS LAND~

이 정현

시마네현의 고쓰시(江津市)는 시마네현에서 가장 인구가 적고 면적도 작은 마을이다. 일본 주코쿠 지방의 제일 큰 강인 고노가와 강이 마을 중심을 흐르고, 80퍼센트가 산간 지역이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한정된 지역이다. 이에 좁은 공간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연간 습도가 높은 고노가와 강 유역을 중심으로 풍부하게 생육하는 이끼를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기업, 생산자 등이 연계하고 있다. “고쓰의 이끼로 세계를 윤택하게”라는 비전으로, 6차산업 모델로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전개하고 있다.

고쓰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와무라 마사키 씨 부부가 운영하는 ‘아리후쿠 MOSS LAND’라는 장소가 있어 방문하였다.

먼저 아리후쿠 온천이 있는 지역까지 차로 이동했다. 작은 지역이지만, 1,370여 년의 역사가 있는 미인탕으로 유명하며 13 곳에서 천연 온천이 나오고 있으며, 3개의 공중 온천 시설이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깨끗한 료칸과 세련된 레스토랑, 와인바 등도 눈에 띄었다. ‘아리후쿠 MOSS LAND’까지는 차로도 이동할 수 있지만, 날씨도 좋았기에 약 1킬로 남짓한 산길을 걸었다. 산속의 풍경과 논밭, 야생화를 즐기며, 마침 개구리들도 큰 소리로 울고 있어 자연을 날 것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주변 경관을 만끽하며 걷다 보면, 작은 개울과 마치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숲 같은 ‘MOSS LAND’가 눈앞에 펼쳐졌다. MOSS LAND에 있는 다양한 이끼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아리후쿠 MOSS LAND’를 운영하고 있는 가와무라 씨 부부는 히로시마 출신으로 바닷가 근처에서 살고 싶어 이주지역을 찾아, 고쓰시로 정한 후, 이끼 재배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6년 전, 시마네현 정주재단의 제도를 이용해 1년간 이끼 재배에 대해서 배우며 독자적으로 재배를 시작했다. 이끼는 뿌리가 없는 식물로 (종류에 따라서는 헛뿌리라는 뿌리와 비슷한 것을 가진 땅속에서 뻗어 나오는 것도 있다),

가이드とともに森の中を歩く ~有福MOSS LAND~

イ・ジョンヒョン

島根県の江津市は島根県で最も人口が少なく、面積も小さい市である。中国地方の一番大きな川である江の川が町の中心を流れており、町の8割が山間部であるため、農業ができる土地が限られている地域だ。そのため、狭い空間でも栽培が可能で、年間湿度が高い江の川流域を中心に豊富に生息する苔を地域の資源として活用するため、江津市・企業・生産者などが連携している。「江津のコケで世界を潤す」というビジョンで6次産業のモデルとして地域活性化を目指すプロジェクトを2015年から展開している。

江津市に住む河村正樹さん夫婦が営んでいる「有福MOSS LAND(モスランド)」という場所があり訪問した。

まず、有福温泉のある地域まで車で移動した。小さな地域だが、1,370年余りの歴史のある美人の湯として有名で、13カ所から天然温泉が湧いており、3つの公衆温泉施設があり誰もが気軽に利用できるところだ。きれいな旅館やおしゃれなレストラン、ワインバーなども目に入った。「有福MOSS LAND」までは車でも行くことができるが、天気も良かったので約1キロ余りの山道を歩いた。山奥の風景や田んぼ、野花を楽しみながら。ちょうどカエルたちも大声で鳴いており、生の自然をそのまま感じることができた。風景を満喫しながら歩いていると、小川と、まるでジブリアニメに出てくる森のような「MOSS LAND」が目

の前に広がった。MOSS LANDにあるさまざまな苔が私たちを迎えてくれた。

「有福MOSS LAND」を運営している河村さん夫婦は広島出身で海の近くに住みたいと思い、移住先を探し、江津市に決めた後、苔栽培を考え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6年前、島根県定住財団の制度を利用して1年間苔栽培について学びながら独自に栽培を始めた。苔は根を持たない植物であり(種類によっては仮根という根に似たものを持つ地中で伸びてゆくものもある)、空気中の水分などに影響を受けるため、日当たりや土の湿度によって敏感に反応し繁殖するので、どこでも順調に育つという保障がない。しかし、6年が過ぎた今、苔の圃場には美しい苔が並んでいる。そして何も無い山の中に数年かけて2人で作ってきた「有福MOSS LAND」は現在、緑一面のコケの森になった。

「有福MOSS LAND」の緑の自然の中で癒され、私たちはお茶一杯とともに時間が経つのも忘れ、過ぎた。「有福MOSS LAND」では単なる自然の中で癒されることにとどまらず、体験活動もできる。河村さんから借りた虫眼鏡と苔の種類について書いてある写真付きの紙を見ながら14種以上の苔を探しながら観察したり、苔などを利用してテラリウムというインテリア用小物作りもオプションで体験ができる。また、海と森をつなぐプロジェクトと名づけられた活動の中で江津市の海岸に流れ着いた流木や浮きを利用したオブジェや小物で



공기 중의 수분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햇빛이나 땅의 습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번식하므로 어디서나 순조롭게 자란다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이끼 농장에는 아름다운 이끼가 즐비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 수년에 걸쳐 부부가 만들어 온 ‘아리후쿠 MOSS LAND’는 온통 초록색으로 뒤덮인 이끼 숲이 되었다.

‘아리후쿠 MOSS LAND’의 초록 자연 속에서 힐링 받으며, 우리들은 차 한 잔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아리후쿠 MOSS LAND’에서는

단순히 자연 속에서 힐링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가와무라 씨에게 빌린 돋보기와 이끼 종류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종이를 보면서 14종 이상의 이끼를 찾으며 관찰하거나, 이끼 등을 이용한 테라리움이라는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도 옵션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바다와 숲을 잇는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활동으로 고쓰시 해안에 흘러들어온 유목과 부레 등을 이용한 오브제 및 소품이 모스랜드에 장식되어 있다. 이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즐겁다.

가와무라 씨는 또, ‘나미노코 잡화점’이라고 하는 가게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끼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미노코 잡화점’에서 주로 재배, 판매하고 있는 이끼는 털깃털 이끼와 흰털 이끼이다. 이것들은 주로 일본식 정원을 만드는 정원사에게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이끼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니, 주로 화분 장식, 조경용으로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삼을 포장하는 재료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요시되는 친환경과 더불어 건물의 옥상이나 벽면, 하천의 호안면 등에 이끼를 매트처럼 피복, 고정해 녹화 식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 풀이라고 생각했던 식물들이 이끼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번 취재를 하기 전까지 이끼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습기가 많고 주로 응달에서 많이 보았기에 곰팡이류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가끔씩 밟거나 만지고 싶지 않았다. 이번 취재 덕분에 다양한 이끼 종류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끼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다.

이끼는 조경뿐만이 아니라 이끼의 항균 작용 성분을 이용하여 약품을 만들거나 향기가 나는 이끼는 향료의 원료로도 사용된다고도 한다. 이끼는 기후변동에 강하고 토양이 없어도 자라고, 중량이 가볍기에 유용성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요즘 많은 나라에서도 이끼 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끼 재배와 이끼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고쓰시의 이끼 프로젝트와 다른 나라의 이끼 활용 프로젝트를 지켜보고 싶다.

PS: 아리후쿠 모스랜드에 방문하실 분께는 아리후쿠 온천지역에서 트래킹, 온천, 이끼 체험활동까지 겸하여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와미 해변 공원 근처에 있는 ‘나미노코 잡화점’에서 이끼 관련 상품과 차 등도 즐길 수 있으니 꼭 방문해 보세요.



る昨今、多くの国でも苔栽培に対する関心が高まっている。苔栽培と苔についての可能性を考える良い機会だったと思う。これからも江津市の苔プロジェクトと他の国の苔活用プロジェクトを見守りたい。

PS: 有福MOSS LANDを訪問される方は有福温泉エリアでのトレッキング・温泉・苔体験活動も兼ねて自然の中で休む時間を楽しむことをお勧めします。また、石見海浜公園の近くにある「ナミノコ雑貨店」で苔関連商品やお茶なども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ので、ぜひ訪ねてみてください。



모스랜드가飾られている。これらを探してみるのも楽しい。

河村さんはまた、「ナミノコ雑貨店」という店も営んでいて、こちらで苔などを販売している。「ナミノコ雑貨店」で主に栽培、販売している苔はハイゴケとヤマゴケだ。これらは日本庭園を作る庭師に主に販売されているようだ。

苔を活用しているものについて調べてみると、主に植木鉢の飾り、造園用として使用され、韓国では高麗人参を包装する材料として主に使用されている。また、最近重要視されている環境にやさしいことと併せ、建物の屋上や壁面、河川の護岸面などに苔をマットのように敷き詰め、被覆・固定し緑化植物として使われている。普通の草だと思っていた植物が苔だったという事実を初めて知った。今回の取材をするまで、苔は人為的に作られたものではなく、自然の中で自然に生まれるものだけ考えていた。湿気が多く、主に日陰で多く見たので、カビ類と似ていると思い、なるべく踏んだり、触ったりしなかった。今回の取材のおかげでさまざまな苔の種類を目で確認し、苔に対する誤解を解くことができた。

苔は造園だけではなく、苔の抗菌作用成分を利用して薬品を作ったり、香りのする苔は香料の原料としても使われるようだ。苔は気候変動に強く、土壌がなくても育ち、重量が軽いため有用性が増加しており、環境問題が叫ばれてい

화석 다다미 '이와미 타타미가우라'

페리페 나시멘토

이번 취재 장소 중 하나인 이와미 타타미가우라는 자연이 만들어 낸 야외 지질학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마네현 서부, 하마다시 해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마다시 관광 자원 봉사 가이드 모임의 우시오 히로미 씨가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이와미 타타미가우라 입구는 해식 동굴로 되어있는데, 입구에 높이 약 25미터의 큰 벼랑이 눈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거친 파도에 의해 깎인 표면에 무수한 암석이 보입니다. 그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큰 바위가 들어 있었던 것 같은 오목한 부분입니다. 우시오 씨에 의하면, 그 부분에는 오랫동안, '떨어질 것 같는데 떨어지지 않는 돌'이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어, 수험 시즌이 되면 학생들이 합격을 기원하러 왔었다고 합니다만, 몇 년 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분명 학생 대신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타타미가우라 입구로 들어갑니다. 타타미가우라의 역사 및 지질에 관해서 설명이 적혀있는 안내판들이 걸려있는 터널을 걸어 사이노가와라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에서 보이는 바다는 절경이고,



'네코시마 섬(猫島)'이라는 작고 귀여운 섬도 보입니다. 동굴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근처에 작은 섬이 한 개 더 있으며, 그 이름도 '이누시마 섬(犬島)'입니다. 우시오 씨가 섬 이름의 유래도 알려주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일본 나라 시대 이 지역에 이와미 고쿠분지 절이라는 매우 호화로운 지붕을 가진 사찰이 지어졌는데, 당나라는 그 사찰 때문에 당나라에 그늘이 생긴다며, 그 지붕을 부수기 위해 아카네코(赤猫)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충견(忠犬)이 나타나, 아카네코(赤猫)를 몰아냈다고 합니다. '네코시마 섬(猫島)'과 '



化石の畳「石見畳ヶ浦」

今回の取材先のひとつ、石見畳ヶ浦は、自然が作り出した野外の地質学博物館といえるでしょう。島根県西部、浜田市の海岸に位置します。浜田市観光ボランティアガイドの会の牛尾博美さんに案内していただきました。

畳ヶ浦の入口は海食洞になっていますが、そこに入るまでに高さ約25メートルある大きな崖が目の前にそびえたちます。荒波によって削られたその表面に無数の岩石が見えます。その中で特に目を引くのは、大きな岩が入っていたような凹みです。牛尾さんによると、確かにそこには長い間「落ちそうで落ちない石」と呼ばれる岩があり、受験になると、学生たちが合格祈願に来ていたようですが、何年前かに落ちたそうです。きっと学生の代わりに落ちてくれたのだでしょうと言っているそうです。

いよいよ畳ヶ浦入口に入ります。畳ヶ浦の歴史や地質について説明する看板がかかっているトンネルを歩いて、賽の河原洞窟へ向かいます。そこから見える海は絶景ですし、「猫島」という小さくてかわいい島も見えます。洞窟の中からは見えませんが、その近くにもう一つ小さい島があり、その名も「犬島」です。牛尾さんがその名の由来も教えてくれました。伝説によると、奈良時代にこの地で石見国分寺という非常に豪華な屋根を持つ寺院が建てられましたが、唐の国は自分が日陰になると言って、その屋根を壊すために赤猫を送り込ん

フェリペ・ナシメント

だらしいです。しかし、日本の忠犬があらわれて赤猫を追いやったといえます。「猫島」と「犬島」はそこから出来たということです。

洞窟を抜けると、千畳敷になります。千畳敷とは、ブラジル最大のサッカー場であるマラカナン・スタジアムの3分の1に相当する、約49,000㎡にも及ぶ広大な波食棚という平な磯です(日本だと東京ドーム相当の面積だと言います)。「千畳敷」、「畳ヶ浦」という名はどちらも、千畳敷を縦横に走る節理からです。規則正しい長方形に見えるパターンを作るその節理を見る日本人にとっては畳が敷かれた部屋に見えます。

畳ヶ浦の千畳敷を歩き続けると見どころがたくさんあります。貝殻に含まれる炭酸カルシウムの動きによって固まった団塊「ノジュール」がその一つです。ちょうどいい高さのベンチになるので休憩にも写真撮影にもいいですよ。その他にフナクイムシの巣穴が多く開いている流木の化石もありますし、クジラのおご骨の化石も探せます。大地の動きで隆起した「馬の背」もあり、その上から綺麗な海も見え、イグアナなど様々な面白い形をした岩が見つかります。想像力を活かしてぜひ探してみてください。もっと歩くと、マグマが地表近くまで入り込んだ跡の「岩脈」があります。「岩脈」をよく見ると周囲とは異なる黒い岩石があります。その辺に「ハッピーシェル」という、ハートの形

이누지마 섬(犬島)은 여기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동굴을 빠져나오면, 센조지키(千畳敷)가 있습니다. 센조지키란, 도쿄 돔 면적에 상당하는 약 49,000㎡에 달하는 광대한 파식붕이라 하는 평평한 암초 해안입니다. '센조지키', '타타미가우라'라는 이름은 모두 센조지키에 중첩으로 뻗어있는 절리(節理)에서부터 왔습니다. 규칙적인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패턴으로 만들어진 이 절리는 일본인들에게는 다다미가 깔린 방으로 보입니다.

타타미가우라의 센조지키를 계속 걸으면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조개껍데기에 포함된 탄산칼슘의 움직임에 의해 굳어진 단괴(團塊) '노들'이 그중 하나입니다. 딱 알맞은 높이의 벤치 같아 휴식을 취하기에도 사진 촬영에도 좋습니다. 그 밖에 배춧조개에 의해 많은 구멍이 뚫려있는 유목 화석도 있고, 고래 턱뼈의 화석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지가 융기하여 말의 등과 같이 생긴 '우마노세(馬背)'도 있어, 그 위에서 아름다운 바다도 볼 수 있으며, 이구아나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형상을 한 바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꼭 찾아보세요. 더 걸으면 마그마가 지표면 가까이 파고든 흔적인 '암맥'이 있습니다. '암맥'을 자세히 보면, 주변과는 다른 검은 암석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해피 셀'이라는 하트 모양의 조개 화석도 띄엄띄엄 있으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찾으시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 '메가네바시 다리(안경다리)'에 도착합니다. 메가네바시 다리에 도착하기 직전의 좁은 길은 발밑을 주의하면서 걸어야 하지만, 깨끗한 물을 바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약 3미터 낙차의 소단층이 있어 상부의 사암층과 하부의 역암층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해 질 녘이고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다면, 물웅덩이를 꼭 찾아보세요. 물웅덩이에서 역광으로 인물 사진을 찍으면 실루엣이 수면에도 비치는 멋진 절경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최고의 트레킹 여행 기념이 될 것입니다.



をした貝の化石もポツポツとあるので探すのも楽しいでしょう。見つけたら幸せになれるかな?

最後は「眼鏡橋」に到着します。眼鏡橋にたどり着くまでの直前の細い道は足元に注意しながら歩かないといけません。綺麗な水が間近で見えますし、落差約3メートルの小断層があって上の砂岩層と下の礫岩層がハッキリと観察できます。夕暮れ近くで風がなかったらぜひ潮だまりを探しましょう。そこで逆光で自分や友達の写真を撮れば、シルエットが水面にも映る素敵な絶景フォトが撮れて最高のトレッキングのシメになるでしょう。

A magazine about Shimane Prefecture, Japan <https://www.pref.shimane.lg.jp/bunkakokusai/>

시마네 이모저모

편집자: 이정현

발행처: 시마네현 환경생활부 문화국제과

정보지에 대한 의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바랍니다.
bunka-kokusai@pref.shimane.lg.jp

発行: 島根県環境生活部文化国際課



Felipe Nascimento



Donovan Goto



Lee Jung-Hyun



Oliver Marshall